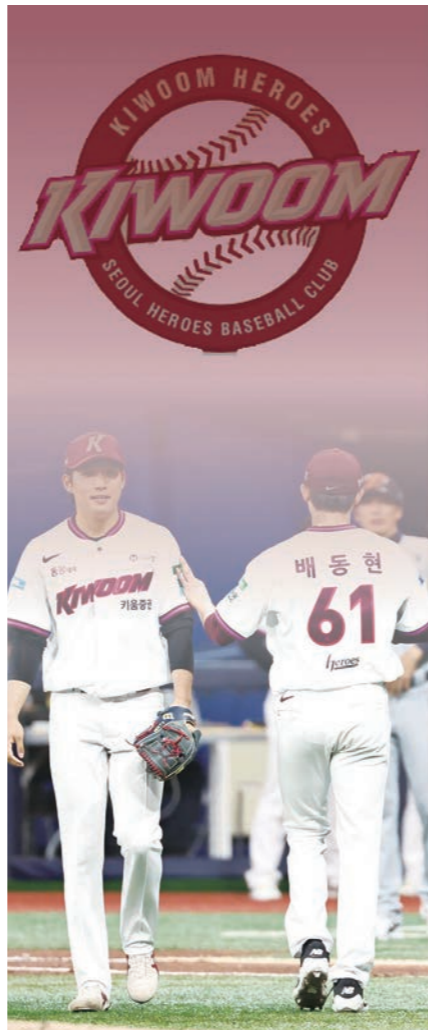


# LG '효율 야구'... 접전에 강했다

득실차 -4에도 승률은 0.596  
피타고리안 승률은 고작 0.491  
접전 때 불펜·작전의 승리 빛나  
한화는 핵 타선 덕 대승 많지만  
팽팽한 경기선 취약 '외화내빈'

KBO리그 실제 승률과 피타고리안 승률 격차  
※24일 기준

구단	승률	피타고리안 승률	격차	득점	실점
삼성	0.609	0.612	-0.003	261	208
LG	0.596	0.491	+0.105	215	219
kt	0.587	0.568	+0.019	273	238
KIA	0.532	0.571	-0.039	254	220
한화	0.489	0.541	-0.052	290	267
두산	0.468	0.504	-0.036	226	224
SSG	0.468	0.487	-0.019	256	263
롯데	0.422	0.399	+0.023	190	233
키움	0.417	0.317	+0.100	173	254
NC	0.413	0.474	-0.061	224	236



야구계에는 '득점과 실점은 결국 승률과 비례한다'는 오랜 믿음이 있다. 이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세이버메트릭스(야구 통계학) 창시자 빌 제임스가 고안한 '피타고리안 승률'이다. 팀의 득점과 실점을 기반으로 계산한 기대 승률인 피타고리안 승률은 팀의 실제 전력을 측정하고 향후 성적을 예측하는데 널리 쓰인다. 24일까지 KBO리그 각 팀 투타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피타고리안 승률과 실제 승률 사이의 엇박자가 눈에 띈다. 기록이 보여주는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올라간 '효율의 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득실 마진을 넉넉히 남기고도 패

배가 더 많은 '불운의 팀'도 있다. 가장 극적인 팀은 단연 LG 트윈스다. 투타 지표를 살펴보면 LG는 올 시즌 47경기에서 215득점하고 219점을 내줘 득점보다 실점이 4점 더 많은 '작자' 팀이다. 이에 따른 피타고리안 승률은 0.491로 5할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LG의 실제 승률은 0.596(28승 19패)으로 1위 삼성 라이온즈에 반 경기 뒤처진 2위를 달린다. 이는 한 점 차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 불펜의 힘과 벤치의 작전으로 승리를 지켜내는 효율적 야구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LG는 3점 차 이내 경기에서 승률 0.724로 전체 1위다.

키움 히어로즈 역시 장부상 수치보다 승리를 더 많이 챙긴 팀이다. 키움은 173득점, 254실점으로 무려 -81점의 득실 적자다. 피타고리안 승률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0.317에 불과하지만, 실제 승률은 0.417로 기대치보다 딱 1할 높다. 대패하는 경기에서는 점수를 크게 내주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잡는 '선택과 집중'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억울할 만한 팀도 적지 않다. 한화 이글스가 대표적이다. 한화는 47경기에서 리그 최고인 290득점을 터뜨렸고 실점은 267점으로 +23점의 득실 흑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피타고리안 승률은 0.541이다. 그러나 실제 성적은 23승

24패, 승률 0.489로 5할을 밑돈다. 타선이 폭발해 크게 이기는 날은 많지만, 접전에서는 약점을 노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산 베어스도 답답한 상황이다. 226득점, 224실점으로 득실 차 +2로 피타고리안 승률 0.504이지만, 실제 승률은 0.468(22승 25패)에 그친다. KIA 타이거즈 역시 득실 차는 +34(254득점 220실점)로 훌륭하고 기대 승률도 0.571에 달하지만, 실제 승률(0.532)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NC 다이노스는 224득점 236실점(득실 차 -12)으로 피타고리안 승률은 0.474지만, 실제 승률은 0.413에 머물며 리그에서 기대 승률 대비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사진·연합뉴스

# 재정난 LIV 골프... 부산대회 어수선

내일부터 아시아드서 티오프  
안병훈·온 램·디셈보 총출동

(KPGA) 투어 3승의 김민규도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재정 문제로 위기를 겪는 LIV 골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을 찾는다. LIV 골프 소속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은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LIV 골프 코리아에 출전해 총상금 3000만 달러(개인전 2000만 달러, 단체전 1000만 달러)를 놓고 경쟁한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달리는 문도엽이 새롭게 가세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규모를 자랑하지만, 최근 LIV 골프를 둘러싼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규모를 자랑하지만, 최근 LIV 골프를 둘러싼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LIV 골프는 대회 창설을 주도하고 최근 4년간 약 50억 달러(약 7조5500억 원)를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투자를 중단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했다.

코리안 골프클럽은 기존 멤버인 교포 선수 대니 리(뉴질랜드)가 와일드카드 로 몰라나고 문도엽이 로스터 빈자리를 채운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던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대회는 가물로 연기됐고, 최근에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다만 한국 선수들의 올 시즌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김민규는 2월 LIV 골프 2026시즌 개막전인 LIV 골프 리아드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한국 국적 선수로는 처음 톱10 성적을 냈으나 이후 대회에선 모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LIV 골프는 최근 한국 내셔널 타이틀 골프 대회인 코오롱 제68회 한국오픈 선수권대회 후원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회 총상금이 2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감액되기도 했다.

송영환은 3월 남아공 대회에서 거둔 공동 17위, 김민규는 지난 달 멕시코시티 대회 공동 2위까지 최고 성적이다. 포인트 순위에서도 안병훈 37위, 송영환 44위, 김민규 53위에 머물러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다짐하고 있다. 코리안 골프클럽의 주장 안병훈과 송영환, 김민규, 문도엽은 안방 팬들 앞에서 대회 기간 역할을 맡는다.

LIV 골프가 내년에도 이어지더라도 리그 잔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는 온 램(스페인)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언해드 골프클럽이라는 팀으로 이언해드 골프클럽이라는 팀으로 운영되다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팀을 개편했다.

그는 올 시즌 7차례 LIV 골프 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 준우승 3차례를 기록했고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29개 대회에 출전했던 안병훈이 새롭게 합류했고,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통산 2승을 거둔 송영환과 한국프로골프

또 지난 18일에 끝난 2026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2위에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해 LIV 골프 코리아 우승자인 브라운 디셈보(미국)는 2연패에 도전한다. 그 역시 올 시즌 7차례 LIV 골프 대회에서 우승 2차례, 3위 두 차례를 기록하는 등 출전하는 대회마다 뛰어난 성적을 냈다.

2022년 디오픈 우승자인 캐머런 스미스(호주),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장 타자 더스턴 존슨(미국) 등도 출전한다.



# 원형탈모 논란 일축한 손흥민 "스트레스 없는데... 걱정마세요"

최근 경기 중계 화면에 원형 탈모로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샀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손흥민은 26일(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밝게 웃는 사진과 함께 "원형 탈모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스트레스받을 일 없는데, 월드컵 때 배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2026 미국프로축구(MLS) 15라운드 홈 경기 당시, 중계 화면에 손흥민의 뒷머리 일부가 빠진 듯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올 시즌 리그 전반기 13경기에서 득점 없이 9도움만 기록 중인 손흥민은 월드컵 전 마지막 소속팀 경기였던 시애틀전에서도 7차례 슈팅을 날렸으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일각에서 득점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선수가 직접 나서 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애틀전을 끝으로 소속팀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흥명보호의 사전 캠프가 차려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총 3골을 터뜨려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한국인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에서 1골만 추가하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장군이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진 지음  
개정판  
20·30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청춘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

임관진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